



고려시대 화엄종華嚴宗과 용수사龍壽寺

Yongsusa and Hwaem Thought in Gory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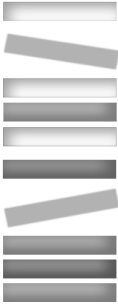
저자 (Authors)	한기문 Han, Ki-moon
출처 (Source)	국학연구 34 , 2017.11, 69-102 (34 pages) KOREAN STUDIES 34 , 2017.11, 69-102 (34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국학진흥원 Korea Studies Advancement Center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02954
APA Style	한기문 (2017). 고려시대 화엄종^{華嚴宗}과 용수사^{龍壽寺}. 국학연구, 34, 69-10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8 09:3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고려시대 화엄종^{華嚴宗}과 용수사^{龍壽寺} *

한기문**

1. 머리말
2. 고려전기 화엄종단의 추이와 법해용문^{法海龍門}
3. 용수사^{龍壽寺} 개창비와 개창과정
4. 용수사^{龍壽寺}의 종풍과 화엄종승의 사상경향
5. 맺음말

요약

고려전기 화엄종은 의천이 종파를 통합하려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의천 사후 오히려 분파되었다. 의천의 화엄학 문도들 중 한 갈래는 계응을 중심으로 태백산으로 퇴거 각화사를 창건하고 법해용문을 형성하여 화엄교단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 이 논문은 2017년 8월 24일 한국국학진흥원이 주관한 “경북지역 불교의 재발견”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이 일부 수정·보완된 것이다.

** 韓基汶, 경북대학교

법해용문의 확장 방법으로 문도 차원에서 용두산 용수사를 개창한다. 문도 확심이 명종의 명을 받아 사원재정을 확정하고 이를 공증하는 일면에서 「용수사개창비」를 건립하였다. 탁본첩으로 전해 오는 개창비문은 18세기 초 유자가 전문을 판독한 『용산지龍山志』 고적조 최선비문과 대교하여 보완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창된 용수사의 구조는 인근 의상계 부석사와 차이가 확인된다. 부석사는 보처불과 영탑이 없는 일승사상을 강조한 전통이 원용국사가 주석한 시기까지 이어졌다. 개창한 용수사는 관음보살상과 청석탑이 조성된 구조였다.

주지한 확심廓心의 『원종문류집해』 권중의 내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용수사의 종풍은 대체로 의천이 원효를 증시한 화엄사상을 계승한다. 13세기 중반 최우집권기에도 용수사의 종풍이 지속되었음은 용수사 비구 현규玄袞가 주장이 되어 『대방광불화엄경소』를 출판한데서 알 수 있다. 이 화엄경소는 의천 화엄사상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의천이 비판한 균여계열의 사상을 이은 체원의 저술을 14세기 각화사 주지 성지性之가 교감하는 활동을 볼 때 태백산계열의 법해용문의 사상경향이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의천義天, 법해용문法海龍門, 「용수사개창비」龍壽寺開創碑, 『원종문류집해』圓宗文類集解, 성지性之

1. 머리말

고려시대 용수사龍壽寺는 「용수사개창기」 탁본이 발견되면서 그 역사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절첩형태의 탁본집을 비석의 결을 살려 전체

를 복원하여 활자화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화엄종단의 인맥을 정리한 논고가 발표되었다.¹ 이어서 비문에 등장하는 고승 확심廓心の 저술을 소개분석하는 글이 발표되었다.² 그리고 용수사의 중수 배경과 경제현황을 용문사龍門寺, 용암사龍巖寺와 함께 분석한 논고가 제출되었다.³

본고는 선행 논고들을 바탕으로 이세택李世澤이 18세기 초 이 지역을 답사하고 용수사의 유적을 소개한 『용산지龍山誌』의 내용을 참고한다.⁴ 특히 전래된 탁본 보다 앞서 판독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적조 최선비문崔洗碑文은 곧 「용수사개창비」로서 그 전문이 수록되어 있어 이를 대조하여 전체 비문을 보완한다. 그리고 고려 고종대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 개판을 주장한 용수사 사당社堂 비구比丘 玄揆와 고려 후기 체원體元의 『별행소別行疏』와 『백화도랑발원문약해白花道場發願文略解』 간행시 교감한 각화사覺華寺 주지 성지性之의 존재도 유의한다. 이들 자료의 보충을 디딤돌 삼아 용수사를 중심으로 그 종풍과

1 許興植, 「龍壽寺 開創記로 본 高麗中期 華嚴宗의 斷面」, 『釋林』 18, 1984(許興植, 『高麗佛教史研究』(一潮閣, 1986) 재수록).

2 許興植, 「義天의 『圓宗文類』와 廓心の 集解」, 『季刊書誌學報』 5, 1991; 吉津宜英·柴崎照和, 「廓心『圓宗文類集解』 卷中について」, 『駒澤大學佛教學部研究紀要』 52, 1994; 吉津宜英, 「廓心『圓宗文類集解』 卷中の研究 - (二) 『圓宗文類集解』 卷中の教學の特色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86(43-2), 1995; 朴鎔辰, 「고려중기 華嚴文類의 편찬과 그 사상적 전승 - 『圓宗文類』와 『圓宗文類集解』」, 『震檀學報』 101, 2006.

3 李炳熙, 「高麗中期 寺院의 助成과 經濟運營」, 『李元淳教授停年記念 歷史學論叢』,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과, 1991(李炳熙, 『高麗後期 寺院經濟 研究』, 景仁文化社, 2008 재수록).

4 『龍山誌』는 18세기 초李世澤이 쓴 일종의 山志이다. 한국국학진흥원의 김순석 선생님이 제공한 것을 이용하였다.

소속승의 사상경향, 화엄종단의 추이, 계열사원, 그리고 왕실과의 관계 등으로 시야를 확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화엄종의 종세를 확장하고 나아가 종단을 통합하고자 한 의천義天의 활동으로 소현韶顯이 활약한 법상종法相宗과 치열한 종단간의 경쟁이 전개되었다. 의천은 법안종과 화엄종, 선종을 아울러는 종단 통합운동을 전개하다가 입적하자 천태오문으로 복기한 법안종과는 달리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한 선종 계열은 선봉사僊鳳寺를 중심으로 한 천대종天台宗으로 결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화엄종 계열 중 한 갈래는 계응戒膺을 중심으로 태백산 각화사를 창건하여 화엄학을 전개하였다. 본고에서 주목한 용수사의 종풍과 동향은 바로 계응 문도의 사세 확장과 그들의 화엄사상의 성격을 가늠하고 이후 추이를 살피는데 하나의 실마리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고려전기 화엄종단의 추이와 법해용문法海龍門

용수사 종풍을 살피기에 앞서 고려전기 화엄종단의 흐름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로써 용수사 개창의 화엄학 인맥을 살필 수 있다. 화엄학은 의상義相에 의해 신라에서 이해되고 부석사浮石寺를 중심으로 화엄 10찰로 대표되는 지방화를 이루었다. 특히 8세기 중엽 성립된 화엄사華嚴寺와 9세기 초 창건된 해인사海印寺 등에서 고승들의 활동이 주목된다. 화엄사에서는 경덕왕대 실존 인물로 확인된 연기緣起의 사상은 의상이 주도한 화엄학과는 달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화엄사가 있던 지리산智異山에서 활동한 연기계를 곧 남악파로, 부석사가 위치한 태

백산의 의상계를 북악파로 파악한다. 『균여전均如傳』에 따르면 신라말 해인사海印寺에서 관혜觀惠를 중심한 남악파와 희랑希朗을 중심한 북악파가 각기 견훤과 왕건을 단월로 분열대립한 사실이 있다. 바로 연기계와 의상계의 대립이 표면화된 것으로 이해한다.⁵

고려 초 광종대 균여均如가 북악파 중심으로 화엄교단을 통합하게 되었다. 균여는 화엄교리 이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엄智嚴·법장法藏·의상의 저술에 대한 주석서를 내었다. 그는 중국 초기의 화엄학 곧 지엄과 법장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그의 화엄학의 주안점은 성상융회性相融會였다.⁶ 그리고 당시 선종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인 면이 반영되어 『화엄신중경華嚴神衆經』이 중시되었다.⁷ 균여의 화엄학은 신라 시기의 것을 거의 계승한 것이다.

그런데 의천이 문종대 완성된 흥왕사興王寺에 주석하여 화엄종을 일으키면서 신라 화엄의 계승자인 균여 계통의 화엄학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신집원종문류新集圓宗文類』를 편집하여 그 근본책으로 삼게 하였다.⁸ 뿐만 아니라 교장 간행의 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에서도 균여의 저술을 제외하였다.

이렇게 된 배경은 고려 초기와 고려 중기의 사상적 과제가 달랐던 데 있다고 한다. 화엄학이 조직될 때 과제였던 성상융회 문제가 아니라,

5 崔柄憲, 「高麗時代 華嚴學의 變遷 - 均如派와 義天派의 對立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30, 1980.

6 金杜珍, 『均如華嚴思想研究』, 一潮閣, 1983.

7 남동신, 「羅末麗初 華嚴宗團의 對應과 『(華嚴)神衆經』의 成立」, 『外大史學』 5, 1993.

8 「新集圓宗文類序」, 『大覺國師文集』 卷1(『韓國佛教全書』 4, 東國大出版部, 1984, 528쪽).

오히려 법상종과 구별을 명확히 하는 대신 화엄학과 선종의 일치 및 화엄학과 천태학天台學의 조화 문제가 새로 대두된다. 이를 위해 의천은 징관澄觀, 종밀宗密의 화엄학을 높이 평가하고 원효元曉의 불교 철학을 재발견하였다. 특히 징관의 교선일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화엄우위의 선을 포섭하여 화엄 가운데 융화하려는 것이었다.⁹

당시 3차에 걸친 거란 침입 후 외적에 대한 강력한 호국신앙護國信仰 고취 분위기가 있었고, 거란과 대치 관계에 있는 송과 정신적 유대 강화를 맺을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불교의 호국 신앙은 선禪보다는 교敎에서 찾을 수 있고 교학의 흥룡은 송대 문화의 수용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러한 시대 요청이 새로운 고려불교 확립으로 나타난 것이다.¹⁰

의천은¹¹ 화엄구조설華嚴九祖說을 내세웠다. 1101년(숙종 6) 홍원사洪圓寺에 구조당九祖堂을 세우고 법상종의 해동육조상海東六祖像을 모신데 대해 화엄학의 종조를 확립하여 화엄종단의 종파를 확립하였다. 의천이 천태종을 내세운 것은 법상종과의 대립에서 선종禪宗을 포섭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131년(인종 9) 흥왕사에서 21일 간 화엄법회의 개최는 화엄종단의 단합과 결속을 위한 것이다. 그 정기성은 알 수 없지만 법상종단의 현화사에서 매년 두 번에 걸친 승려 대회와 비교된다. 그리고 흥왕사에 법상종단에서 강조한 미륵을

9 최병헌, 앞의 논문, 1980; 최병헌, 「大覺國師 義天의 華嚴思想研究 - 均如의 華嚴思想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韓國史學』 11, 精神文化研究院, 1990.

10 洪庭植, 「高麗佛教思想의 護國의 展開(1)」(『佛敎學報』 14, 1977), 29~32쪽 참조.

11 의천의 생애와 활동에 관한 자료는 『大覺國師文集』과 「興王寺大覺國師墓誌」(『韓國金石全文』 531쪽), 「靈通寺大覺國師碑」(『韓國金石全文』 574쪽), 「偃鳳寺大覺國師碑」(『韓國金石全文』 593쪽) 등이 있다.

모시는 자씨전(慈氏殿)을 세우고, 의천은 법상종 계통의 저술에 대해 관심을 가져 『간정성유식론단과(刊定成唯識論單科)』 서문(序文)을 쓰고 있다. 그리고 흥왕사에 교장사(敎藏司)를 설치하고 송과 거란 등지에서 수집한 불교 연구서인 교장(敎藏)을 간행하였다. 의천은 법상종단을 의식하여 화엄조사의 확립, 포괄적 사상적 관심과 교장의 간행, 선종의 포섭 등을 통해 종단을 강화하였다.¹² 그는 왕자 출신으로 왕실의 지원을 받았다.

흥왕사에 교장사를 둔 화엄종단은 그 계열 사찰에도 출판을 위한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는 의천이 간행한 『원종문류(圓宗文類)』 권1의 간기이다. 여기의 상교자의 소속사원과 직명(僧名)을 살펴보면 흥교사(興敎寺)·불일사(佛日寺)·봉선사(奉先寺)·진관사(眞觀寺)·묘지사(妙智寺) 등의 개경 사원과 해인사(海印寺)·귀신사(歸信寺)·송천사(松川寺) 등의 경상·전라·남부 지역의 지방 사원 소속 승들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태백산(太白山)·팔공산(八公山) 등의 화엄계 사원의 승들의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¹³

하지만 태백산(太白山)·만약산(漫岳山)·팔공산(八公山) 등지의 화엄계 사원이 개창과 중수 등으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예종대 부각된 계응(戒膺)과 그 법손의 활동으로 가능하였다. 계응에 대해서는 1125년(인종3)에 건립된 「영통사대각국사비(靈通寺大覺國師碑)」 음기에 문도로 삼중대사(三重大師)조에 있다.¹⁴ 무애지국사(無碍智國師)는 문장이 자유자재로 왔고, 예종이

12 한기문, 「佛敎를 통해 본 통일신라고려 왕조의 연속성 - 종단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29, 2010, 99쪽.

13 韓基汶, 「高麗中期 興王寺의 創建과 華嚴宗團」,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1998, 64~67쪽.

대내에 머물 것을 간청했으나 시를 지어 거절하고 태백산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최자의 『보한집補閑集』에 전해진다.¹⁵ 그리고 이인로의 『파한집破閑集』에 소개된 자료도 있다.¹⁶ 여기에 따르면 의천의 적사嫡嗣라 하고 예종의 경앙을 받았다고 한다. 여러 차례 간청하여 태백산에 들어 가 손수 각화사를 창건하고 법시를 열었는데 사방의 학자가 폭주하여 날마다 천백명은 되니 법해용문法海龍門이라 한다.

의천의 적사가 태백산으로 퇴거한 이유는 개경에서의 화엄종단내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유가종단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의천은 현종대에 흥왕사에서 홍원사洪圓寺로 옮겼다가 해인사로 퇴거한 적이 있다. 이 때의 사정은 이자의가 그의 생질을 즉위시키고자 족단을 동원하였고 그 속에 있던 아들 지소智炤가 흥왕사를 장악한 때문이었다. 숙종의 4왕자 징엄澄嚴이 1119년부터 흥왕사의 주지에서 물리나 승선사, 귀신사에 있다가 1131년 흥왕사로 돌아 올 때까지 10여 년은 인주이씨의 전횡 시기이다. 이 때 이자겸의 아들 의장義莊이 유가종단은 물론 화엄종단에도 압박을 가한 것이다.¹⁷

요컨대 고려전기 화엄종은 의천에 의해 흥왕사를 중심으로 교장을

14 「靈通寺大覺國師碑」, 『韓國金石全文』, 586쪽.

15 『補閑集』 卷下, “無導智國師戒膺 講道外游刃於文章 睿王邀入大內苦請留 師作詩云 聖勅嚴明辭未得 巖猿松鶴別江東 多年幸免魚吞餌 一旦翻爲鳥在籠 無限旅愁宮裡月 有時歸夢洞中風 不知何日君恩報 瓶錫重回對碧峯 卽往太白山卜居將終焉 上復遣使徵之 屢詔不受.”

16 『破閑集』 卷中, “太白山人戒膺 大覺國師適嗣也 幼時寓僧舍讀書 大覺隔牆 聞其聲曰 此眞法器也 勸令祝髮 在門下 日夕孜孜鑽仰 優入闕奧 繼大覺 弘揚大法四十餘年 爲萬乘敬仰 常不離筆轂 累請歸太白山 手瓶覺華寺 大開法施 四方學者輻湊 日不減千百人 號爲法海龍門.”

17 한기문, 앞의 논문, 앞의 책, 1998.

간행하는 등 화엄학 연구를 주도하였다. 의천 사후 화엄학 문도들 중 한 갈래는 계응을 중심으로 태백산으로 퇴거하여 법해용문을 형성하여 화엄교단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3. 용수사_{龍壽寺} 개창비와 개창과정

용수사 개창비는 1181년에 세워진 화엄종 사비_{寺碑}이다. 18세기 초 이세택_{李世澤}이 쓴 『용산지_{龍山誌}』의 고적조에 최선비문으로 전문이 알려졌다. 이우_{李僎}의 『대동금석첩_{大東金石帖}』에 일부 탁본으로 소개되었고, 『조선금석총람_{朝鮮金石總覽}』에도 탁본 일부가 판독되어 8행 210자 정도 파악되었다. 이후 허홍식은 일본 천리대 도서관에 보관된 서첩형태의 탁본을 비문 전체의 형태로 복원하여 전문을 활자화 하였다. 서수용_{徐守鏞}은 『용두산 용수사』에서¹⁸ 개창기 원문과 탁본 영인을 소개하였다.

여기서는 허홍식의 판독문을 바탕으로 탁본과 『용산지』 최선비문을 대교_{對校}하여 보완본을 제시한다.

18 徐守鏞 編, 『龍頭山 龍壽寺』, 동방미디어, 1997.

龍壽寺開勅記(題額)

龍頭山龍壽寺開勅記

- (1) 天下之名山三韓爲多三韓之勝地東南爲嶽東南之巨者太伯稱爲首焉
孕靈富媼作鎮綿世何巫盧衡霍之足陳耶自太伯而南起伏三百餘里」
- (2) 突如而委出者是爲龍頭山實永嘉郡所負而都者也夫有非常之境必有
非常之事山之南有洞洞之口有藪焉土人稱爲 大王藪蓋」
- (3) 我神□□□□之際略地至於南方頓兵於此三日而後乃行從此以南諸
不服者靡然納款至今其地多喬木衆卉樵蘇者不敢近謂有神物護」
- (4) 之者邑之□□□傳云苦於之作大伽藍闔境帖然無劫奪饑饉之患也先
是洞中有古寺 累遭山燒灰滅無餘獨遺基隱然在於草莽中蓋不」
- (5) 知年紀矣越 毅廟元年丙寅秋覺華寺住持比丘誠源聞其境勝而悅
之遂占地於舊基南數百步始立屋數間未幾源師沒而門人處彝繼」
- (6) 之凡實力於其中累變星霜其前後所立唯十餘間而已彝知力屈財殫乃
諗於高僧胤公以卒先師之業爲請公乃目擊而心許之時公五承其」
- (7) 授住覺華寺至甲申歲承 命赴關 上從容問公曰 先祖睿王嘗爲
膺公勅立 覺華俾弘揚華嚴教理至于今人受其賜朕亦爲公立」
- (8) 一華嚴精舍無俾覺華專美於前其如公意何公乃以龍頭山之事應命
上心頗喜 卽命日者榮緯往省其地緯 命曰弘大法利國家」
- (9) 非此地莫可於是 賜號龍壽寺申命守土之臣管其務遂迄徒鳩材經
始於乙酉歲增 構佛宇僧寮齋講偃息之□以至庖廚庫廩無慮九十」
- (10) 餘間繚以周墻一百許步人無勞勩役不過煩適于制度不古不今是役也
門人雲美實摠其事焉又刻木塗金造□□□□□觀世音菩薩像」

- (11) 各一覆以龕室列以幡幢莊嚴之飾吁其可駭叶器儲待罔不備具又立長生庫蓄穀一千碩歲其贏以爲油香□□□斯皆出於公之□□□」
- (12) 及諸門弟子施長物而爲之者也及歲在癸巳公忽感疾而化先期數日以狀舉雲美於 朝以自代復薦高第□□廓心以主是寺心亦開土」
- (13) 也自幼受業於公小問多悟穎脫而出及其居是專以弘揚聖教爲事又奉先師之遺囑 立經律論藏及十三層青石塔□座於是乎洪願盡矣能」
- (14) 事畢矣乃以戊戌歲十一月 宣送茶香及慶讚詞疏集清衆七百人設大華嚴會以落成焉是」
- (15) 今上龍飛之九載大金大定十八年也尋有 旨仍屬古寺田柴一十結又慮其口衆食寡其於經久之道不能無加賜新寧郡嚮福寺」
- (16) 田四十結藏獲三十口及旁近地閑田四十結下左右街司及諸主者施行勿替先是嚮福 卽毅宗藏胎之所也中遭□火靡有孑遺因以田」
- (17) 與民移籍是寺以爲追福 毅宗駕謝幽塗登樂岸之捷徑也又每於忌日齋僧作法以薦流年恒式因以知 聖上弘大佛事之爲」
- (18) 至亦以識友于之義不問於幽明也至是住持廓心等實懼歲月徂謝文字漫滅 聖君之詔旨先師之行跡將因莽鹵無聞於後」
- (19) 具狀其事以聞 上命臣誥以記之臣聞自漢明以來像教熾于天下大都小邑名山勝境鮮不□梵刹而聚縑流蓋將使大法光揚以爲」
- (20) 不朽之道也故當其始作之際無不欲規萬世圖千劫然或繼之者非其人又無世主之外護則徒厚殖資產以□□□而使圖像毀滅屋宇殘圯」
- (21) 者比比有之今是寺者胤公以大德宿望得福地而營之上承 人主護念之勤下得門弟精進之人其爲貽久歷□也雖劫石成灰泰山若礪」

- (22) 烏有窮已豈非源深者流必長根茂者葉必盛乎公俗姓元氏名釋胤北原人也考沖翼爲州戶長母方娠夢抱摩尼珠覺□心異之生有異相自
- (23) 髫髻時善事其親年甫十三洒然有出世之志以告二親二親以前夢貴徵惜之未卽頷無何竊出投雉岳山三泉寺慧譚法師求剃髮師以非
- (24) 其親所託難之父母百計引還卒不可忽一夕母夢公爲僧合掌向佛而作梵唄於是父母議許出家雖在妙年志尙素朴戒行殊特口亦羅什
- (25) 之門瑚璉玄奘之門沉檀蘭蕙者已年至十八依無尋智國師受學盡傳其業歷住雉岳山開善寺三角山清源寺最後住覺華寺皆
- (26) 上所命也公常以傳道授業爲樂學者輻湊所居成市閒因檀越所請法會者三十餘所凡所度學者後皆爲聞人公所住處無不革舊創新俾
- (27) 佛事增煥又於諸山構修真之地凡有四所嗚呼公非徒於道詣極之如彼抑其所樹立卓卓如此是皆宜書以示後者歟觀夫古之記事者傳信
- (28) 傳著焉耳臣父先臣嘗與公申昵參問道要非一日矣時臣以稚齒脩洒掃於左右竊聽緒餘及見行己之大方甚熟今撥門人之所錄以爲信且
- (29) 著故直書其事之始末如此大定十一年龍集辛丑季夏哉生魄文林郎試禮賓少卿知制誥賜紫金魚袋臣崔詵奉
- (30) 宣記并書 門人住持道人臣 廓心立石 門人開善寺住持道人臣 立心刻字

글자 아래에 선(-)을 친 부분은 『용산지』 고적 최선비문에서 보완한 부분이다. 글자 아래 점선(···) 친 부분은 『용산지』 최선비문에서 누락한 부분인데 탁본을 바탕으로 한 허흥식의 판독으로 정확하다. 괄호 번호는

행수를 나타낸다.

보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7)행에서 ‘우于’자를 보완할 수 있다. (9)행에서 ‘이이’자를 보충할 수 있다. (10)행에서 현 탁본에 결자 된 ‘귀역불 劫役不’ 3자를 찾을 수 있었고, 또한 12자 결자에서 ‘관세음보살상觀世音菩薩像’ 6자를 더 읽을 수 있었다. (14)행에서 ‘인人’자를 보완할 수 있다. (20)행에서 ‘비非’자를 더 읽어 보완할 수 있다. (21)행에서 ‘역歷’자를 보완한다. (22)행에서 ‘각覺’자를 더 읽을 수 있다. (23)행에서 ‘주酒’자를 ‘쇄酒’자로, ‘예諺’자를 ‘서譜’로 바로 잡는다. (25)행에서 ‘팔八’자로 바로 잡는다. (28)행에서 ‘비일非一’로 더 읽을 수 있고, ‘쇄酒’로 바로 잡는다. 이상 『용산지』에서 판독된 비문에서 18자 정도 더 보완할 수 있고, 3자 정도 바로 잡는다.

비의 형태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아 알 수 없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시기에 입비된 「중수용문사기重修龍門寺記」와 같이 규수형圭首形の 비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비문이 세워진 과정은 아래와 같다. 용수사 주지 확심이 대장경과 13층 청석탑을 갖추고 사원전을 확보하고 의종을 추복하는 사원으로 정한 후에 명종에게 비문을 세울 것을 소청하였다. 명종은 최선에서 그 비문을 짓도록 하였다. 최선은 그의 부친 최유청崔惟淸과 확심의 스승 석윤釋胤과도 친한 사이였고 최선이 어릴 때 들은 이야기도 기억하고 있어서 비문을 짓고 쓰게 되었다. 확심은 세월이 지나가면 문자가 마멸되어 신성하신 임금의 명령과 돌아가신 스승의 행적이 점차 흐려지고 후세에 알려지지 않을까 염려하여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국왕의 명으로 비문이 세워지기를 소청한다. 국왕의 명으로 개창된 용수사의 위상을 확보하고자 한 의도를 알 수 있다. 또한 개창비는 의종의 명을 끌어내어 지방관을 통한 공사를 진행하는 큰 역할을 한 석윤을 개창조로서 그의 일대기를 비문 말미에 정리하였다. 이 비문은 용수사의 개창 과정

과 사원재정기반의 공증과 개창조 석윤의 일대기에 관한 비문인 셈이다.

용수사는 그 성립과정과 비문의 제액에서 보듯이 고려 중기 개창 사원이다. 명종대 다수의 사원이 증수되었는데 현재 내용이 전하는 비문은 「용수사개창기」가 유일하다. 그래서 사원이 어떤 연유로 개창되고 그 과정과 시설, 재정 등은 어떠한 지를 살필 수 있다.

1146년(의종 원년) 가을에 각화사 주지 성원誠源이 용두산 골짜기 옛 절터에서 남쪽에 건물 몇 간을 지었고, 문인 처이處彝가 여러 해 애써 십여 간 확장했으나 재물이 다하여 각화사 다섯 번째 주지를 맡고 있던 윤공胤公에 도움을 청하였다. 윤공은 곧 처이인데 1164년(의종 18) 대궐에 나아가 의종이 조부 예종이 각화사를 창건한 예를 들어 각화사 못지 않게 짓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그 자리를 추천하였다. 1165년(의종 19)에 지방관의 담당으로 인부를 모아 공사를 시작하여 법당, 요사채, 재齋와 강의, 휴식을 위한 시설을 늘리고, 주방과 창고 등 90간으로 확장하고 회랑을 100여 보 둘렀다. 나무를 조각하고 도금塗金한 불상을 조성하였는데 관세음보살상觀世音菩薩像 등이 있고 각 하나씩 감실을 덮고 번당을 늘어놓아 장엄하게 하였다. 실제 공사에서는 문인 운미雲美가 하였다. 장생고長生庫를 세워 곡물 1,000석을 쌓아 두고 그 이자를 받아 유향油香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윤공과 문도 제자들이 시납한 물건들을 가지고 조성한 것이다. 윤공은 1173년(명종 3) 입적하였는데, 입적하기 전 운미를 각화사 주지로 천거하고 용수사 주지에 확심廓心을 추천하였다.

확심은 경장, 율장, 논장과⁹ 13층 청석탑을 만들었다. 이로써 작업이

19 이는 대장당 건물에 대장경을 갖추었다는 의미이며 교화사원의 면모를 보여 준다(韓基汶, 「高麗時代 寺院 轉藏儀禮의 成立과 性格」, 『한국중세사연구』 35, 2013).

모두 끝나게 되었다. 1178년(명종 8) 국왕이 차, 향, 그리고 사소詞疏를 보내고 승려 700인을 모아 대화엄회大華嚴會를 열고 낙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제 기반을 획정하였다. 옛 절의 전지 10결을 그대로 갖게 하고 의종의 태장소胎藏所였으나 화재로 소실된 향복사嚮福寺 전 40결과 노비 30구 및 근처 묵힌 전 40결을 더 지급하여 왕명으로 좌우가승록사左右街僧錄司와 여러 담당자에 내려 시행하고 바꾸지 말게 하였다. 여기서 매년 의종의 제삿날에 재를 베풀고 의식을 행하여 명복을 빌도록 항식恒式으로 하였다.

이상의 용수사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용수사는 태백산 각화사에서 문도가 늘어나고 세속 신자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되었는데 성원과 차이가 추진한 단계까지이다. 율공 단계에서는 의종으로부터 지방관을 통한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원받았다. 각화사가 주도하고 문도들이 낸 재원으로 유지비까지 확보한다. 확심 단계에 와서 명종의 명으로 사원전 90결이 획정되고 그 대신 의종을 위한 기일재畧日齋를 지내는 사원으로 정해진다. 율공 단계에는 공사를 지원받고, 확심 단계에서는 사원전寺院田을 획정하게 된다. 그리고 문도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국왕의 명을 받고 있어서 각화사 중심의 계승 문도의 세력 확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의종은 율공의 지원 요청에 응하고, 명종은 확심의 사원전 획정과 사비의 건립을 승인하였다. 이처럼 의종, 명종 연간에 지방 소사에 대한 지원이 있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²⁰ 명종은 무인 정권이 들어선 후 28년간을

20 이병희는 이 시기 고려초 국가차원의 불교의례와 달리 왕실 차원의 불사를 행하고, 중수 내지 증창이 그 사원이 속한 종파와 같은 계통 승려가 담당하며, 사원 재정을 망사잔고 사전을 재 절급하는 점 등이 새로운 현상으로 주목된다고 하였다(앞의 논문, 1991).

재위하였다. 『고려사』에는 그가 무인 정권에 눌러 국왕으로서 역할과 기반이 없었던 것으로 서술되어있지만, 지방 불교 사원을 지원하여 상당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용수사 외에도 용문사, 상주尙州 만악산萬巖山의 용암사는 명종 비의 추복의 장으로 하고 내탕물을 내어 그 유지를 위한 모곡母穀을 제공하였다. 직지사直指寺에도 임유林濡가 명종을 위한 축성보를 설치하였고, 상주 공성현功城縣의 소림사小林寺를 중수한 김영의金泳義는 명종으로부터 축성보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원 경제의 기반은 명종이 왕권을 위한 기반으로 삼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최충헌이 집권하면서 올린 봉사 10조에 “내신內臣으로 하여금 삼보三寶를 관장해서 곡식으로 민에게 취식행위를 하여 그 폐가 적지 않다”²¹라고 한 것은 명종이 이들 사원에 비치한 곡물을 내신을 통해 재정 운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앞서 예를 든 용수사의 주지 운미와 소속 미상의 존도存道家 최충헌에 의해 폐행승孽幸僧으로 규정되어 명종의 측근에서 축출되고 있는 것에서 명종의 왕실 원당의 경영과 이에 대한 최충헌의 견제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명종은 소군小君을 7명이나 두었는데 이들은 궁중에 출입하며 권세를 누리고 유명한 절을 주지하였다. 이들 역시 명종의 불교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²²

다음은 용수사의 사원 시설과 그 특징을 살피기로 한다. 법당, 요사채, 재와 강의 그리고 휴식 공간, 주방과 창고 등이 있다. 불상은 관세음보살상觀世音菩薩像이 확인되고 나머지 불상은 비문 결락으로 확인할 수 없

21 『高麗史』卷129 列傳42, 崔忠獻, “內臣句當三寶 以穀取息於民 其弊不細.”

22 韓基汶, 「禮泉“重修龍門寺記”碑文으로 본 高麗中期 禪宗界의 動向 - 陰記의 紹介를 중심으로」, 『文化史學』 24, 2005.

다. 그런데 각 불상은 나무를 조각하여 금을 도금하는 상이며 각각 감실龕室을 덮고 번당幡幢을 늘어놓아 장엄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장, 율장, 논장과 13층 청석탑을²³ 만들었다.

용수사 시설과 장엄은 12세기 후반의 사원 특징을 보여 준다. 각화사와 가까운 같은 화엄종의 부석사의 장엄에 관해서는 1054년(문종 8)에 세워진 「원융국사비」에서 특별한 언급이 있어 주목된다. “이 절은 의상사義相師가 서화西華에 유방遊方하여 지엄智嚴의 범등을 전하여 돌아 와 창건한 것이다. 상전像殿 내에는 오직 아미타불상阿彌陀佛像만 있고 보처補處가 없고 또한 영탑影塔을 세우지 않는다”²⁴라고 하였다. “제자가 거기에 대해 묻자 의상이 말하기를 지엄이 이르기를 일승 아미타는 열반에 들어감이 없고 시방정토十方淨土로서 체體를 삼고 생멸상生滅相이 없는 까닭에 화엄경 입법계품에 이른바 혹 아미타를 보아 관음보살의 관정 수기자는 제법계諸法界에 보처가 충만하므로 보처가 결한 것이다. 불佛이 열반하지 않으므로 결함이 있지 않은 까닭이므로 보처가 없고 영탑影塔을 세우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일승一乘의 깊은 요지이다. 엄사嚴師가 이로써 상사相師에 전하고 상사는 법사法嗣에 전하여 국사國師에 이른 것이다”²⁵라 한다.

화엄종 부석사에는 의상의 일승 논리에 의거 상전에 아미타상만 있고

23 청석탑은 18세기 초 이세택 작성 『용산지』에는 법당 庭中에 있고 12층이라 하였다.

24 「浮石寺圓融國師碑」, 『韓國金石全文』, 482~483쪽, “是寺也 義相師遊方西華 傳炷智嚴 後還而所創也 像殿內 唯阿彌陀佛像 無補處 亦不立影塔。”

25 「浮石寺圓融國師碑」, 『韓國金石全文』, 483쪽, “弟子問之 相師曰 師智嚴云 一乘阿彌陀無入涅槃 以十方淨土爲體 無生滅相故 華嚴經入法界品云 或見阿彌陀 觀世音 菩薩灌頂授記者 充諸法界補處 補闕也 佛不涅槃 無有關時故 □□補處 不立影塔 此一乘深旨也.” ‘□□’는 『朝鮮金石總覽』 271쪽에는 판독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타난다. 문맥상 ‘無有’로 추독 된다.

보쳐 보살상을 두지 않으며 영탑 또한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용수사에는 주존상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관세음보살상이 감실에 번당으로 장식되어 모셔진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13층 청석탑이 세워졌다. 비록 각각 11세기 중엽과 12세기 후반 기록의 반영이지만 같은 화엄종 사원인데도 사원 장엄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는 용수사 개창에 적극적 지원을 한 각화사의 종풍과 관련되고 각화사 창건 주 계응의 화엄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계응은 의천의 적사로 알려진 만큼 의천의 화엄 사상과도 연결된다. 의천은 화엄 사상에서 균여와의 차이를 드러냈고 의상보다는 원효의 사상에 경도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점이 용수사 장엄 구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한다. 다음 장에서는 용수사의 종풍에 대해 주석 고승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4. 용수사_{龍壽寺}의 종풍과 화엄종승의 사상경향

용수사의 종풍과 주석승의 사상을 고찰하기로 한다. 용수사가 성립되는 데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각화사 문도의 재정 지원 하에 시작된 만큼 각화사 창건주 계응의 활동과 사상을 먼저 살펴야 한다. 계응은 예종의 지원으로 태백산에 각화사를 창건하였다. 김부식이 쓴 각화사비가 있다고 하나²⁶ 현전하지 않는다. 김부식은 『인종실록』과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각화사비 외에도 의천의 제자인 혜소_{惠素}가 쓴 『대각국사행록』

26 『櫟翁碑說』 後集 2, “金文烈_{惠院}歸信覺華諸寺碑 崔文肅_{玉龍}碑 不爲表_表 自成一家.”

10권을 김부식이 축약하여 비명으로 작성하였다고 한다. 그의 문집 20권이 있었지만 현전하지 않아 자세한 사실을 알 수 없다. 그의 출신을 고려하면 왕권과 신라 회고적 경주계 세력을 대변하는 문필가이자 노학자였던 것으로 짐작된다.²⁷

각화사비는 각화사의 개창과 계응의 약력을 소개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비가 세워질 때는 계응이 생존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계응은 사후 무애지국사로 추증된 듯하다. ‘무애지無導智’는 『화엄경』에 나오는 말로 계응은 화엄경에 조예가 있었던 것 같다. 1153년(의종 7)에 작성된 교웅教雄의 묘지명에 인종대 교웅을 성교聖敎를 홍양弘揚할 인물로 천거한 이가 무애지국사라 한 것으로 보아,²⁸ 묘지명 작성 시기에는 이미 계응은 사거한 것이 틀림없다. 계응이 교웅을 천거한 것은 “태백산에서 같이 은거 수행하여 일승지종一性之宗을 다하고 만상萬相의 이치를 궁구하여 이름이 높았다”는 것으로 보아,²⁹ 계응이 교웅보다 연배로서 그의 수행 모습을 지켜 본 결과였을 것이다. 그 천거 시기는 아마 징엄이 사거한 1141년(인종 19) 무렵이 아닌가 한다.³⁰ 징엄을 이를 화엄종장을 추대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교웅의 묘지명에는 인종이 두텁게 우대하고 당시 공경 학사 대부가 경중하지 않음이 없어 실로 화엄 일종장一宗匠이라 하였다. 1146년(의종 즉위년)에 각화사 주지가 계응의 제자인 성원인 것

27 『高麗史』 卷98 列傳11, 金富植; 『補閑集』 卷中.

28 『洪圓寺超悟僧統敎雄墓誌』, 『韓國金石全文』, 720쪽, “仁宗 以至誠嚮內問 可使弘揚聖敎者誰歟 無導智國師薦之曰 莫如師 由是 仁宗深厚遇而當時公卿學士大夫亦莫不敬重 實華嚴一宗匠也.”

29 『洪圓寺超悟僧統敎雄墓誌』, 『韓國金石全文』, 720쪽, “與無導智國師 遊太伯山 遂以盡一性之宗 窮萬相之理而名益著.”

30 『興王寺圓明國師墓誌』, 『韓國金石全文』, 632쪽.

으로 보아 계응의 몰년은 1141년에서 1146년 사이가 된다.

무애지국사비가 작성된 것은 장수張修 묘지명에서 알 수 있다.³¹ 이에 따르면 장수는 은퇴한 뒤인 황통 9년(1149, 의종 3)에 태백산사무애지국 사비명을 썼는데 비록 노필이지만 서체가 경정勁正하여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였다고 한다. 이 비의 서자는 장수이고 각화사비는 찬자가 김부식이다. 각화사비와 무애지국사비가 같은 비를 말하는지 서로 다른 비인지는 확정할 수 없다.

계응은 의천의 적사였으므로 의천의 화엄사상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사상 경향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그의 수행관을 알 수 있는 시구만 전한다. 계응이 당시 불교계에 대한 비판 정신은 그의 제자 지승智勝에게 준 시詩에서 짐작된다. “호학好學하는 이가 이 세상에 별로 없고/ 망형忘形하는 것도 예로부터 드물다/ 돌아보건대 내가 무슨 얹이 있으리오 마는/ 자네가 와서 의지하면서/ 궁곡에서 삼동을 함께 지내 었더니/ 춘풍 오늘에 돌아가네 그려/ 가고 머무는 것이 모두 세상 밖의 것이니/ 눈물 흘릴 것 없네”라 하였다.³² 계응은 명리를 버리고 화엄학 연구에 몰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용수사를 본적 개창한 고승은 각화사 다섯 번째 주지 석운이다. 그의 이력은 최선이 그의 부친과 친교가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비문에서 소개하였다. 속성은 원씨元氏이고 북원인北原人이다. 아버지 원충익元冲翼은 주의 호장戶長이었다. 나이 23세에 치악산 삼천사 혜서慧誥 법사에

31 김용선, 「새 자료 고려묘지명 다섯 점 반」, 『歷史學報』 198, 2008, 423~428쪽, “致仕九年稟聖 棄傳至太伯山寺無碍智國師碑銘 雖老筆(…)體勁正 人皆歎服.”

32 『破閑集』 卷中, “好學今應少 忘形古亦稀 顯余何所有 而子乃來依 窮谷三冬共春風 一日歸 去留俱世外 不用淚霑衣.”

나이가 출가하였다. 18세에 무애지국사에 의탁하여 가르침을 받아 그 학문을 모두 이었다. 치악산 개선사와 삼각산 청원사 등의 주지를 역임하고 마지막으로 각화사에 머물렀다. 늘 도를 전하고 학문을 가르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으므로 배우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머무는 곳은 저자를 이루었다. 때때로 단월들의 요청에 의해 법회에 참석한 것이 30여 곳이였다. 여러 산에서 수행하는 곳을 만든 것이 모두 네 곳이였다. 계웅과 같이 수행에 중점을 두고 그가 머문 곳을 모두 수행도량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그 네 곳은 그가 주석한 치악산 개선사, 삼각산 청원사, 태백산 각화사, 용두산 용수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석운 다음으로 용수사와 관련된 고승은 운미이다. 그는 석운의 문인으로서 석운이 의종의 명을 이끌어 내어 지방관의 주관하에 인력을 동원한 용수사 개창 공사에 실제적 일을 주관하였다. 그의 활동은 용암사기龍巖寺記에도 보인다. 이 비는 현전하지 않고 『동국여지승람』 상주 고적조에 인용되어 있다. 속성은 김씨이고 명주 사람이다. 치악산 개선사의 운공의 강연아래에 들어가 수업하여 넓은 학문과 높은 행실로 위로는 임금의 의지하고 공경하는 바가 되고 아래로는 배우는 자들이 쳐다보고 우러르는 바가 되었다고³³ 하였다. 계웅의 화엄학을 계승한 것으로 짐작된다.

1173년 석운이 입적하자 스승의 뒤를 이어 각화사 주지직을 맡았다. 각화사 주지로 있으면서 1174년(명종 4) 명종의 요청 하에 서쪽 변방의 험고를 밟고 항거한 데 대한 간난艱難을 구제할 불사를 열고, 명종을 위한 원당願堂을 물색하여 용암사를 지정하였다. 1174년의 반역은 곧 서경

33 『東國輿地勝覽』卷28, 尙州 佛宇 龍巖寺, “美師俗姓金氏 溟州人 在妙齡 洒然有出塵志 投雉岳山開善寺胤公講下而受業 以博學高行 上爲人主之所歸敬 下爲學者之所瞻仰.”

유수 조위총趙位寵이 동북 양계에 격문을 보내 꺾기를 호소한 사건을 말한다.³⁴ 1178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179년에 완성하고 의정왕후懿靜王后의 명복을 비는 원당으로 삼고 전田 40경頃과 내탕內帑으로 모곡 2,000석을 준비하였다. 이에 앞서 1165년(의종 19)에 용수사 90여 간 공사를 실제적으로 주관하였다. 운미는 의종과 명종 연간에 왕실의 원당을 태백산 줄기의 여러 사찰 터를 발굴하여 공사하고 재정을 확보하는 등 화엄종 사세 확장 사업을 주관한 승려였다. 그는 최충헌 정권이 들어서면서 폐행승斐幸僧으로 규정되어 폐출되었다. 이로 보아 그는 명종 연간에 각화사 주지이면서 내원당승內願堂僧으로³⁵ 활동하다가 1196년 명종의 폐위와 함께 더 이상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개창된 용수사의 주지는 확실히 석운이 그를 뛰어난 제자라 하고 용수사의 주지를 맡게 하였다. 운미와는 범형제가 되는 셈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확실히 대장경을 완비하고 청석탑을 세워 용수사의 장엄 시설을 마무리하고 재정 기반 역시 국왕의 명으로 확정하고 개창비로서 그 증빙을 영원히 하고자 하였다.

그의 사상적 경향을 알 수 있는 저술은 『원종문류집해』 권중이다. 그리고 거기에 인용된 『십지중요집해十地宗要集解』도 그의 저술로 추정된다. 이는 현존하지 않지만 『십지중요』에 대한 주석이다. 이 『십지중요』에 대하여 원효는 중요명을 붙인 저작으로 『법화경중요』를 위시하여 17부가 확인된다. 이처럼 『십지중요』는 원효의 저작으로 생각된다. 다만 의천의

34 『高麗史』卷19 世家, 明宗 4年 9月 己酉, “西京留守趙位寵起兵 謀討鄭仲夫李義方 檄召東北兩界諸城.”

35 내원당은 국왕 측근에서 활동하는 승려의 僧職이자 궁중 소제 사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설명은 한기문, 「고려시대 內願堂의 기능과 위상」(『한국중세사연구』 38, 2014) 참조.

『신편제종교장총록』에는 보이지 않는다.³⁶ 이로써 확심은 화엄학연구에서 원효의 저작을 중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원종문류집해』는 천리대학교天理大學校 도서관 금서문고今西文庫에서 발견되어 소개되었다. 『원종문류집해』 권중이란 전체가 상중하 3책 가운데 중권임을 의미한다. 찬자는 ‘해동태백산전교사문 확심집海東太白山傳教沙門廓心集’이라 하여 태백산 각화사 개화주 계응의 문도임을 나타내고 있다. 종요의宗要義, 탐현기探玄記는 『원종문류』 권14의 제문행위류 부분과 상통하여 이 부분이 집해 대상일 것으로 보인다. ‘성화사년무자세조선국간경도감봉교어개성부중수成化四年戊子歲朝鮮國刊經都監奉教於開城府重修’는 1468년(세조 14)에 간경도감에서 왕명으로 간행되었으며 초간본을 개성부에서 중수하였음을 말한다.³⁷

이 책은 의천의 『원종문류』에 대해 종요의宗要義·초회이지의初會理智義·국토해의國土海義·종취의宗趣義로 분과分科하여 집해한 것이다. 『원종문류』는 현재 권1 제문발제류諸文發題類, 권14 제문행위류諸文行位類, 권22 찬송잡문류讚頌雜文類 등만 전한다. 제문발제류는 다양한 화엄문류의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집록한 것으로 제부발제류諸部發題類로 이칭되지만 동일한 것이다. 제문행위류는 탐현기探玄記, 오교장五教章, 수현기搜玄記, 공목장孔目章, 지상문답至相問答 등의 화엄 장소에서 행위 부분을 뽑아내어 분류한 것이다. 찬송잡문류는 원종문류 마지막권에 해당하며 화엄경과 고승대덕에 대한 찬문讚文, 법계관송法界觀頌, 화엄결사문華嚴結社文 등 잡문이 수록되었다. 또한 의천은 송의 승려들과 교류하였는데

36 吉津宜英·柴崎照和, 앞의 논문(1995), 89쪽 참조.

37 이상의 소개와 형태상 분석은 허흥식, 앞의 논문(1991) 참조.

그들의 글을 다수 수록하였다.³⁸

편찬시기는 1087년에서 1088년 사이로 추정된다. 당대에 유행하였던 동아시아 불교계를 포함한 고려중기 다양한 화엄 문류를 종합하였다. 중국의 화엄 조사의 장소를 참고하고 인용하였는데 지엄, 법장, 징관 등의 저술을 주로 인용하였다. 처음은 징관의 화엄교학에 영향 받았지만 입송 구법 이후는 주로 법장의 화엄학으로 확대되었다.³⁹ 『원종문류』를 펴낸 목적은 화엄교학을 배우는 학인들을 위하여 화엄전적 중에 요문要文을 뽑아 그 독자의 견식에 의하여 주제별로 편집한 것이다.

『원종문류집해』 권중은 『원종문류』의 어느 부분을 집해한 것인지는 불명하다. 탐현기에 근거한 4개의 주제를 둘러싼 제설諸說을 열거하고 문답問答하여 논난論難과 화통會通에 의하여 의논議論을 깊이 하고 최후에는 집알集日, 해왈解日 등에 의하여 저자 확심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원종문류집해』 권중에 보이는 특색은 먼저 법장과 징관을 양사兩師 혹은 양조兩祖라 하여 중시하고 일체로 화통하는 자세이다. 이러한 자세는 확심이 의천을 계승한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원효元曉를 언급한 것이 많다는 것이다. 초회이지의에 『십문화쟁론十門和爭論』의 인용, 종취의에 『기신종요起信宗要』에 대한 언급이 주목된다.⁴⁰

확심의 원효에의 의거는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을 참작하면 알 수 있다. 확심이 의천 이래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의천은 원효 불교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해동보살海東菩薩만 성성과 상相을 융명融

38 박용진, 「의천의 『圓宗文類』 編纂과 그 의의」, 『史學研究』 82, 2006.

39 박용진, 앞의 논문(2006) 참조.

40 吉津宜英, 앞의 논문(1995) 참조.

明하고 고금古今을 은괄隱括하고 백가百家 이쟁異靜의 단端을 화和한다.”⁴¹ 라 하였다.⁴² 의천은 조도를 황무하게 한 화엄승으로 맹렬히 비난한 균여를 의상을 계승한 학승으로 보았다.⁴³ 확심은 의천의 화엄사상에 대한 경향성을 충실히 계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점 때문에 태백산 각화사와 인근한 부석사와는 전혀 교류가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용수사 장엄 구조와도 차이가 나는 배경이 아닌가 한다.

입심立心은 용수사개장 비문을 각자한 승려이다. 법명으로 보아 확심과 법형제일가능성이 있다. 비문을 각자할 당시 그는 개선사 도인 주지를 관창하고 있어 확심과 함께 석운의 문인일 가능성이 있다. 그에 관한 기록이 더 이상 없어 사상적 경향은 알 수 없으나 확심과 같은 경향이었을 것이다. 그가 주지한 개선사 역시 석운이 주석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넓게는 계옹 문도의 소속 범위에 든다.

태백산을 근거한 계옹의 문도들의 사상적 경향은 이후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더 이상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그 흐름을 알 수 없다. 다만 1196년 최충헌 정권의 등장과 명종의 퇴위 그리고 운미의 폐행승으로 축출 등으로 미루어 보아 각화사를 중심으로 한 계옹 문도의 화엄학은 위축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1241년(고종 28)으로 추정되는 신축년辛丑年에 가야산伽倻山

41 「祭芬皇寺曉聖文」, 『大覺國師文集』卷16(『韓國佛教全書』4, 555쪽), “唯我海東菩薩 融明性相 隱括古今 和百家異靜之端.”

42 의천이 원효를 중시하는 태도에 대해 지적한 논고는 崔柄憲, 「高麗佛敎界에서의 元曉理解 - 義天과 一然을 중심으로」(『元曉研究論叢』, 국토통일원, 1987); 金杜珍, 「義天의 圓頓사상과 그 불교사적 의미」(『北岳史論』10, 北岳史學會, 2003) 참조.

43 「上淨源法師書 四首」, 『大覺國師文集』卷10(『韓國佛教全書』4, 543쪽), “雖則義相權輿於眞宗 均如斧藻於玄旨 舟壑已達 人琴兩亡 大義繇是陵遲 微言幾於泯絕.”

하거사下鉅寺에서 조조한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 4권 중 3권 12장 속의 간기에는 용수사龍壽寺 사당비구社堂比丘 현규玄揆가 주장主張이 되고 하거사 도인道人 천장天章 계담戒湛이 권연勸緣하고 도인道人 문계聞契가 교감校勘하여 신축년 5월에 하거사에서 조조雕造 한다는 내용이 있다.⁴⁴ 강화경으로 천도하고 대몽 항전시기인 1241년(고종 28)에 용수사 승려 현규가 주장이 되어 가야산 하거사 승의 권연, 교감, 조조로 개판한다. 주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대방광불화엄경소』의 출판을 주관한 것으로 보인다. 『대방광불화엄경소』는 징관의 화엄경소를 錄하여 정원淨源이 80권 화엄경에 충실히 주석을 하여 화엄경주소華嚴經注疏라 칭해질 수 있는 것이다. 하거사 조조본은 주소내의 권 80·81·82·83에 수록된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 제37만 취하여 대자大字로 간각刊刻한 것이다. 의천이 중시한 80권 화엄경의 주소를 출판한 점으로 볼 때 의천의 화엄사상을 계승한 용수사의 사상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운미를 폐출한 최충헌 집권기와는 달리 최우 집권기에는 용수사 사세가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최충헌집권기와 최우집권기에는 불교정책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최충헌 집권 초 극심한 교종탄압이 있었지만 최우집권기에는 집정기구까지 정비하여 안정화를 바탕으로 다시 교종세력을 아우

44 龍壽寺社堂比丘玄揆主張/ 下鉅寺道人 天章戒湛勸緣/ 道人聞契校勘/ 辛丑五月日伽儂山下鉅寺彫造.

藤田亮策은 해인사 사간관을 검토하면서 下鉅寺로 판독하였으나(『朝鮮學報』 138, 1991), 최영호는 下鉅寺로 목판을 관찰하고 판독한 바 있다(『참여각수의 출신 성분과 현실인식』, 『江華經板 高麗大藏經의 판각사업연구 - 경전의 구성체제와 참여자의 출신성분』, 景仁文化社, 2008). 또한 藤田亮策이 용수사 사당비구 ‘玄機’로 판독한 것을 최영호(앞의 책)와 임기영(『海印寺 寺刊板殿 所藏木板研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49~50쪽)이 ‘玄揆’로 바로 잡았다. 임기영은 이 간기의 신축년은 1241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각수 9명이 등장하므로 대장경 조조와 상관성이 있고 이 시기는 중국연호 사용이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

르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⁴⁵ 13세기 중반 대몽항전기에 이르러서도 용수사가 화엄학 연구의 중심으로서 위상을 가졌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14세기 원간섭기 활동한 체원體元의 저술 『화엄경관자재보살소설법문별행소華嚴經觀自在菩薩所說法文別行疏』의 끝 부분에 ‘각화사 주지비구 성지교감覺華寺住持比丘 性之校勘’이라 하여 각화사의 주지 성지가 교감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화사는 의천의 적사 계응에서 비롯된 태백산계 화엄학과 중심 사찰이다. 용수사의 창건이 각화사 중심의 화엄종의 확대에서 비롯한 만큼 14세기까지도 용수사는 각화사의 영향하에 있었을 것이다.

체원은 본관이 경주인 이진李璘의 둘째 아들이며 이제현李齊賢의 바로 위의 형이다. 주로 활약한 사원은 해인사, 반룡사盤龍寺, 법수사法水寺 등지였다. 이들 사원에서 균여 저술의 조판과 관련되고 있어서 체원은 의상-균여-천기天其-수기守其로 계승되는 화엄종의 경향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체원의 저술 『별행소』의 성격도 화엄계통의 인용서 중 80:60:40 화엄에 대한 징관소澄觀疏가 가장 많은 점, 『별행소』 하권의 집해는 법화, 천태 계통의 내용이라 할 정도로 『법화경』의 관음신앙과 관련된 영험담 위주의 내용인 점, 북종선의 창시자 신수神秀의 『묘리원성관妙理圓成觀』이 인용되어 있다는 점 등이다. 체원은 의상 이래 화엄종이 표방한 실천신앙의 측면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체원의 또 다른 저술 『백화도량발원문약해白花道場發願文略解』도 각화사 성지가 교감하였다. 이 저술은

45 채상식, 「高麗後期 佛敎史의 전개양상과 그 경향」, 『歷史敎育』 35, 1984.

1334년(충숙왕 복위 3) 계림부鷄林府에서 개관하였다. 의상이 표방한 정토로의 중생구제라는 현실적 실천적 관음신앙을 계승하는 입장에서 저술했다고 할 수 있다.⁴⁶

각화사 주지 성지가 체원의 두 저술을 교감한 사실로서 의천의 화엄사상을 계승한 태백산계 화엄학파의 성격 전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원간섭기에 피폐한 사회 현실에서 현세구난의 관음신앙을 강화하는 체원의 사상적 경향으로 전환한 것이거나 보다 탄력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5. 맺음말

태백산 각화사를 중심한 의천의 적사 계승과 그의 문도들에 의해 형성된 화엄학파 곧 법해용문의 성립과 성격, 그리고 전개를 용수사 개창기와 불전 간기 등의 자료를 통해 추적하였다.

고려전기 화엄종은 의천에 의해 홍왕사를 중심으로 교장을 간행하는 등 화엄학 연구를 주도하였다. 아울러 종파를 통합하려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의천 사후 화엄학 문도들의 한 갈래는 계응戒膺을 중심으로 태백산으로 퇴거 법해용문法海龍門을 형성하여 화엄교단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46 체원의 활동과 저술 경향에 대한 분석은 채상식, 『體元의 저술과 화엄사상 - 14세기 화엄사상의 단면, 『奎章閣』 6, 서울대 도서관, 1982(蔡尙植, 『高麗後期佛教史研究』, 一潮閣, 1991 재수록) 참조.

법해용문 곧 각화사의 사세 확장으로 시작된 용두산 용수사 개창은 문도 차원에서 시작하여 석윤이 의종의 명을 끌어내어 지방관이 전담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후 문도 확심이 명종의 명으로 사원재정을 확정한고 이를 공증하는 차원에서 개창비를 건립하였다. 이 비문은 천리대학교 도서관에 탁본첩으로 전해 왔는데 전체 비문으로 복원하고 활자화한 연구에 의하여 용수사의 개창 과정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18세기 유자에 의해 전문이 판독된 『용산지』 최선비문을 대교하여 보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르면 개창된 용수사의 구조는 인근 의상계 부석사와 차이가 확인된다. 부석사는 보처불과 영탑이 없는 일승사상을 강조한 전통이 원용국사가 주석한 시기까지 이어졌다. 개창한 용수사는 관음보살상과 청석탑이 조성된 구조였다.

용수사의 종풍은 주지한 확심의 『원종문류집해』 권중의 내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의천의 『원종문류』의 논난論難·회통會通 부분을 집월集月, 해월解月을 통해 견해를 붙여 풀이 한 것이다. 『원종문류』도 22권 중 3권만 전하고, 『원종문류집해』도 3권 중 권중만 전하여 그 전모를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의천의 화엄사상을 계승한 특색이 확인된다. 곧 법장징관 등의 『화엄경』 견해를 중시하고 원효의 사상을 받아들인다. 이는 의상, 균여로 이어지는 화엄 중심적 사상과는 차이를 형성한다. 13세기 중반 최우집권기에도 용수사의 종풍은 지속되었음은 용수사 비구 현규가 주장이 되어 의천이 중시한 징관의 소를 정원이 다시 80권 화엄경에 의하여 주석을 붙인 『대방광불화엄경소』를 출판한데서 알 수 있다. 하지만 14세기 각화사 주지 성지가 균여계열의 사상을 이은 체원의 두 종의 저술을 교감하는 활동을 통해 태백산계열의 법해용문의 사상경향이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천과 계응, 그리고 확심으로 이어지는 원효계열 화엄사상 흐름 추이

에 초점을 둔 결과, 의상계열과의 사상적 깊은 내용의 차이점과 발전상, 그리고 최씨정권기 수선사계열 사상과의 연관성 등의 문제에는 자료의 발굴 부족으로 깊이 접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연구를 기대한다.

• 2017. 10. 19 : 논문투고

• 2017. 11. 06 ~ 11. 17 : 심사

• 2017. 11. 24 :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

참고문헌

1. 저서

- 金杜珍, 『均如華嚴思想研究』(一潮閣, 1983)
徐守鏞 編, 『용두산(龍頭山) 용수사(龍壽寺)』(동방미디어, 1997)
李炳熙, 『高麗後期 寺院經濟 研究』(景仁文化社, 2008)
蔡尙植, 『高麗後期佛敎史研究』(一潮閣, 1991)
최영호, 『江華經板 高麗大藏經의 판각사업연구 - 경전의 구성체제와 참여자의 출신성분』(景仁文化社, 2008)
韓基汶,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民族社, 1998)
許興植, 『高麗佛敎史研究』(一潮閣, 1986)

2. 논문

- 金杜珍, 「義天의 圓頓사상과 그 불교사적 의미」, 『北岳史論』 10(北岳史學會, 2003)
김용선, 「새 자료 고려모지명 다섯 점 반」, 『歷史學報』 198(2008)
남동신, 「羅末麗初 華嚴宗團의 對應과 『(華嚴)神衆經』의 成立」, 『外大史學』 59(1993)
朴鎔辰, 「고려중기 華嚴文類의 편찬과 그 사상적 전승 - 『圓宗文類』와 『圓宗文類集解』」, 『震檀學報』 101(2006)
_____, 「의천의 『圓宗文類』 編纂과 그 의의」, 『史學研究』 82(2006)
李炳熙, 「高麗中期 寺院의 助成과 經濟運營」, 『李元淳敎授停年記念 歷史學論叢』(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과, 1991)
임기영, 『해인사 시간판전 소장목판연구』(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채상식, 「體元의 저술과 화엄사상 - 14세기 화엄사상의 단면」, 『奎章閣』

6(서울대 도서관, 1982)

- _____, 「高麗後期 佛教史의 전개양상과 그 경향」, 『歷史教育』 35(1984)
- 崔柄憲, 「高麗時代 華嚴學의 變遷 - 均如派와 義天派의 對立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30(1980)
- _____, 「高麗佛敎界에서의 元曉理解 - 義天과 一然을 중심으로」, 『元曉研究論叢』(국토통일원, 1987)
- _____, 「大覺國師 義天의 華嚴思想研究 - 均如의 華嚴思想과의 比較를 중심으로」, 『韓國史學』 11(精神文化研究院, 1990)
- 韓基汶, 「禮泉 “重修龍門寺記” 碑文으로 본 高麗中期 禪宗界의 動向 - 陰記의 紹介를 중심으로」, 『文化史學』 24(2005)
- _____, 「佛敎를 통해 본 통일신라고려 왕조의 연속성 - 종단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29(2010)
- _____, 「高麗時代 寺院 轉藏儀禮의 成立과 性格」, 『한국중세사연구』 35(2013)
- _____, 「고려시대 內願堂의 기능과 위상」, 『한국중세사연구』 38(2014)
- 洪庭植, 「高麗佛敎思想의 護國的 展開(1)」, 『佛敎學報』 14(1977)
- 許興植, 「龍壽寺 開創記로 본 高麗中期 華嚴宗의 斷面」, 『釋林』 18(1984)
- _____, 「義天의 『圓宗文類』와 廓心の 集解」, 『季刊書誌學報』 5(1991)
- 吉津宜英, 「廓心『圓宗文類集解』 卷中の研究 - (二) 『圓宗文類集解』 卷中の敎學의 特色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86(43-2)(1995)
- 吉津宜英·柴崎照和, 「廓心『圓宗文類集解』 卷中について」, 『駒澤大學佛敎學部研究紀要』 52(1994)
- 藤田亮策, 「海印寺雜板攷」, 『朝鮮學報』 138(1991)

Abstract

Yongsusa and Hwaem Thought in Goryeo

Han, Ki-moon
Kyungpook National Univ.

On Hwaemjong in early Goryeo Euicheon did Sects-Integrating movement, After his death the sect divided. Gyeoeung-based branch among the pupils of Euicheon's Hwaem Ideas builds Gwakhwasa in Taebek Mt.. They developed Hwaem Association through the founding of Beophaeyongmun.

To do this the students establish Yongsusa in Yongdu Mt.. On Myeongjong's decree Euicheon's disciple Hwaksim insured the temple's finance and made 「Yongsusagechangbi」 to secure this. This rub-bed-copy epitaph I completed with Confucianist's comprehended Choiseonbimun of 『Yongsanji』-Gojeokjo in early 18C..

On head-monk Hwaksim 『Weonjongmunryujibhe』 Yongsusa's ethos largely inherits Weonhyo's Hwaem thinking that Euicheon emphasized. On Hyeongyu's pressed 『Debanggwangbulhwaeumgyeongso』 the ethos was kept also in Choi U's reign in the middle of 13C.. This book implicates enough Euicheon's Hwaem Ideology. On Gwakhwasa head-monk

Seongji's correcting Chewon's writings that succeeded Gyunyeo-line opinion which Euicheon criticized, the thought flow of Taebeksan-faction Beobhweyongmun was changed.

Key words

: Euicheon(義天), Beobhweyongmun(法海龍門),

「Yongsusagechangbi」(龍壽寺開創碑), 『Weonjongmunryujibhe』

(圓宗文類集解), Seongji(性之)